

아코디언 용기형태 CrushPak 국내 공급

혁신적인 디자인 통해 제품 차별화 기대



이 태 희

(주)하이남코퍼레이션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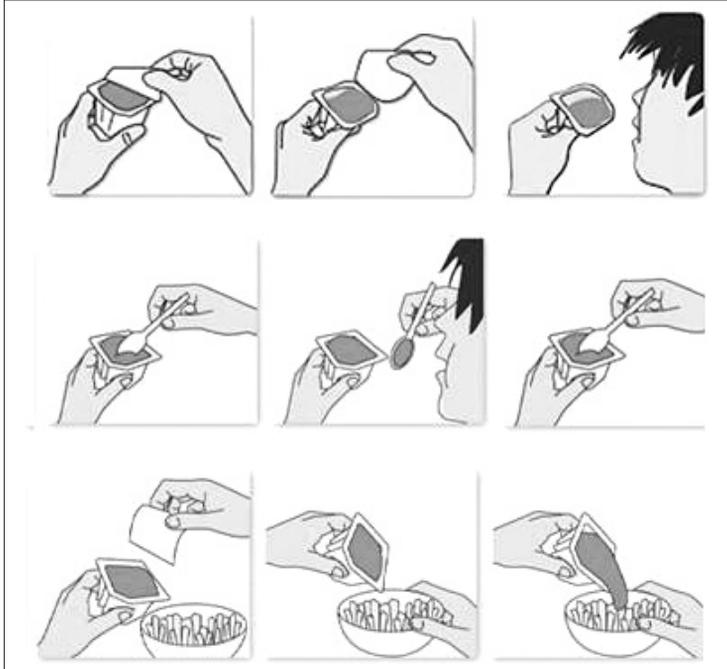
현재, 세계 포장 업계는 편리함의 극대화, 스낵류의 증가, 제품 소비시 이동성, 재미있는 포장과 특히 어린이를 위한 포장제품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별성있는 제품으로 각 사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 이래, 기존 호상 요구르트 등의 용기에 적용하여 스푼 없이 먹을 수 있는 혁신적인 용기인 CrushPak이 (주)하이남코퍼레이션(대표이사 이태희)에 의해 국내에 소개, 업계로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1991년 10월 서울 마포에 설립된 하이남코퍼레이션은



▲ 각광받고 있는 CrushPak



◀ 다양하게 적용가능한 CrushPak

세계 유수의 포장기계 제조업체의 한국 내 대리점으로서 유업, 제과, 제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포장설비를 공급해오고 있으며 관련 고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업체이다.

1992년 미국, Sabel Engineering, 이탈리아 Hitech system, 호주 Tronics사 등과 대리점 계약을 시작으로, 하이남코퍼레이션은 1993년 서울우유, 동양제과 그리고 크라운 제과 등

에 Sabel, Hitech 설비 공급을 시작했다. 1998년부터는 중국에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수출하고 있으며, 2001년 이탈리아 Alimac 사의 생수 병틀 테잎을 제주 삼다수와 롯데 칠성 음료에 납품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하이남코퍼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은 포장에 필수적이며 포장에 상품의 가치를 평가 받는 일차적인 요소라는 판단 아래, 국산화가 미흡한 분야

에 설비를 공급, 설비 후에 월등한 생산성 향상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업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달 하이남코퍼레이션이 국내에 소개한 Crushpak은 독특한 방식의 새로운 포장기술로 호상요구르트, 젤리, 케첩, paste, fruit pulps 등과 같은 유제품 또는 점성이 있는 제품을 담는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적인 소비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문 산업디자인 회사인 Inveratak사에 의

HINAM

해 개발, 현재 세계 각국에서 포장특허를 획득한 Crushpak은 아코디언 형태의 용기디자인으로 제작, 기존 방식대로 제품을 먹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스푼을 사용하지 않고도 깨끗하고 쉽게 제품을 먹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하이남코퍼레이션에 관계자에 따르면 Crushpak 개발자인 Michael Kessell은, 그의 어린 딸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내어, 반쯤 마신 후에 쓰레기통

에 버리는 것을 목격, 짧은시간에 벌어진 이 광경을 통해 그는 아이의 행동에 궁금증이 생겼고, 쓰레기통으로 가서 반쯤 남겨진 채 버려진 요거트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어린 딸은 스푼없이 요거트를 먹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딸처럼 어린 아이들이 스푼없이도 요거트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잠긴 것.

Mr. Michael Kessell(현 Inveratek사 R&D 부사장)은 4년에 걸쳐 아코디언 형태

의 요거트용기를 구체화시키면서, Paul Adams, Edward Scoot 과 함께 Inveratek사를 2003년도에 설립, 두명의 미국 투자자가 R&D와 특허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회장인 Henry Bolanis(예일대 제품개발과 기술혁신 교수)가 신용과 자금을 투자했다.

이후 Crushpak와 Fontera사는 라이선싱계약을 맺고, 뉴질랜드에서 "Spaltz"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첫 제품의 성공적인 반응을 통해 4개월도 채 되지않아 새로운 제품 "



◀ 하이남코퍼레이션이 공급하는 CrushPak

CalciYum Squeezables.”를 출시하게 되었다.

세계 5대 유제품 생산업체인 뉴질랜드의 Fonterra사는 요구르트와 유제품용기로 inveratek사를 통해서 2006년 뉴질랜드내 Crushpak의 라이선스를 취득, 지난 해 주요 요거트 브랜드 “Fresh ‘n Fruity를 통해 Crushpak 기술을 이용한 “no bits” 어린이 요거트 “Splat”를 발표하게 된 것. 이 회사는 “Splat”를 시장에 선보이고,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룸으로써, “CalciYum Squeezables.”이라는 두번째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은 뉴질랜드 전역 슈퍼마켓에서 125g 4팩포장으로



▲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CrushPak

유통되고 있으며, CrushPak은 현재 사용중인 기본적인 Form fill seal machine 혹은 Pre-form vacuum form seal machine에서 어떠한 부품 교체없이 cavity mold의 교체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례로 Fonterra사 뉴질랜드공장에서는 20년동안 사용한 Erca Machine (www.erca-formseal.com)에서 Cavity Mold만의 교환으로 CrushPak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Crushpak의 독특한 디자인은 기존용기에 비해 더 얇게 제작해도 높은 강도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30% 정도의 원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기존제품들의 용기들과 차별화되어 시선을 끌기 때문에, 판매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Crushpak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g부터 220g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생산할 수 있다.

하이남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고객의 기호에 따라 스푼을

사용해서 또는 스푼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먹을 수 있으며, 제품을 찢서 먹거나 또는 짚어 먹을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는 편리한 포장디자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유제품과 양념조미료 제품군의 모든 제품들의 소비기회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남코퍼레이션은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는 손잡이용 MOPP Tape의 한국 대리점으로서 국내의 생수 병들(2liter, 0.5Ltr) 팩에 사용되는 손잡이용 테이프를 이태리로부터 수입, 국내의 모든 생수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바비큐 요리용 알미늄백인 Qbag을 영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을 시작했다.

소비자를 위한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이남코퍼레이션, “고객 지향적이며 고객이 필요로 할 때 고객에게 항상 신속하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 온 하이남코퍼레이션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